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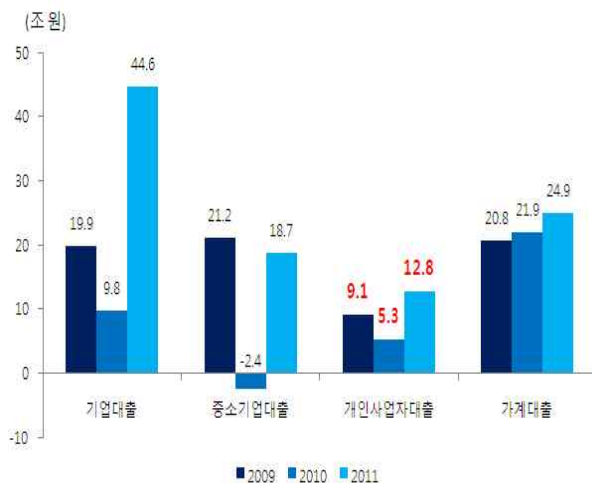
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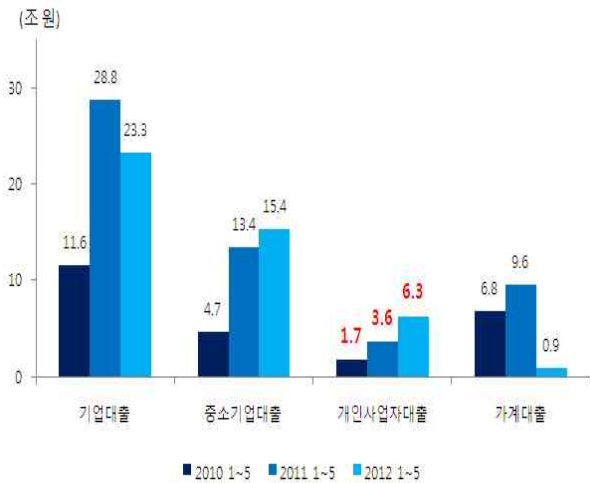
■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¹⁾은 취급유인²⁾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됨.

- 2012년 5월 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64조 8,000억 원으로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35.9%를 차지함.
-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 1,000억 원으로 확대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2010년 5조 3,000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2011년 12조 8,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.
- 또한, 개인사업자대출이 2012년 1월~5월에도 6조 3,000억 원 늘어남에 따라 2010년, 2011년 동기간(1~5월)과 비교하여 증가폭이 확대됨.

〈그림 1〉 국내은행 대출 증감 추이(연도별)



〈그림 2〉 국내은행 대출 증감 추이(기간별)



주: 1) 국내은행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기준임.

2) 중소기업대출에는 기존 중소기업대출로 취급되었으나 요건강화로 인해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규모를 포함(2011년 4/4분기 4조 9,000억 원, 2012년 1~5월 11조 4,000억 원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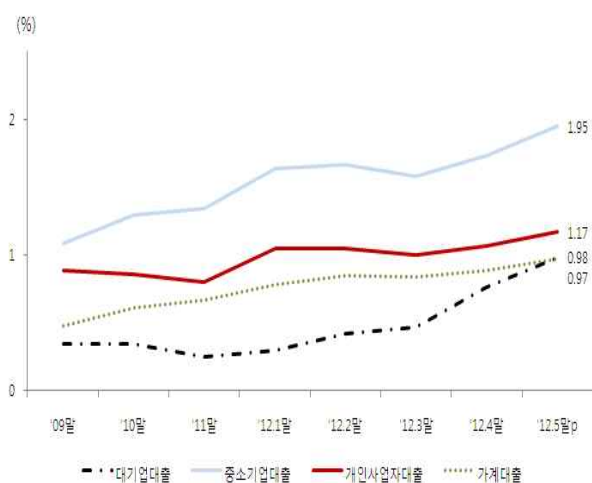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감원.

- 1) 법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로서 중소기업대출에 포함됨.
- 2) 가계부채에 대한 재무상환능력 확인 강화, 핵심성과지표(KPI) 제외 등이 있음.

■ 개인사업자대출의 자산건전성(연체율, 부실채권비율)은 대체로 양호하나 2012년 들어 다소 악화됨.

- 2012년 5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,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년말대비 0.37%p 상승한 1.17%를 기록함.
- 2012년 3월 말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은 가계여신 보다 다소 높고 중소기업여신 및 대기업여신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전년말대비 0.17%p 상승한 0.98%를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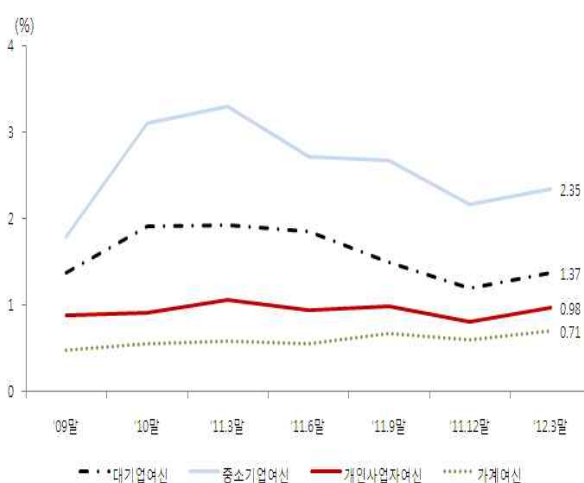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추이



주: 1)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기준임.
2)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임.

자료: 금감원.

〈그림 2〉 국내은행 여신 부실채권비율 추이



주: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기준
자료: 금감원.

■ 향후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업종편중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에 대비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, 용도 외 유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방지할 계획임.

(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, 금감원, 7/6)